



GLAM SPORTS

+

**CONSCIOUS
DENIM**

&

SHINSEGAE
GIFT BOOK

+
THE
SHINSEGAE
10

SEASONAL
TASTES

FINDING FOREST

STELLA McCARTNEY

*and
much more*



아이 벤치 III, 1996~1997, 블랙 짐바브웨 화강암, 129.5×243.8×139.7cm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눈

본점 트리니티 가든에 허공을 강하게 응시하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품, '아이 벤치'가 놓여있다. 작품에 숨겨진 부르주아의 자전적 이야기와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치명적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과장된 눈의 모습으로 언뜻 보면 섬뜩하고 기괴한 인상을 주는 트리니티 가든의 작품 '아이 벤치 Eye Benches'. 이를 완성한 작가는 현대미술의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이다.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한 부르주아는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꾸준한 활동에도 70대에 들어서야 주목 받기 시작한 그녀는 긴 무명 시절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타계 이후 현재까지 미술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녀는 1982년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뉴욕현대미술관 MoMA에서 회고전을 열고,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으며, 타계하기 직전 90대 고령까지 작업을 이어나간 미술계의 거장이다. 부르주아는 2010년 타계하기 직전까지 드로잉, 석판화, 설치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녀는 90대에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내 작품이 어떤 '이즘'으로 묶이는 것에 반대한다. 단지 나 자신과 내가 아는 것에 관해 표현할 뿐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부르주아의 작품 세계는 어떤 양식이나 범주로 쉽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창의적이라 평가되고 있다. 이는 작업 초기에 수많은 예술가와 교류하며 원시미술,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실존주

의 등 20세기 주요 미술사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서서히 구축해 나갔기 때문이다. 전통과 권위에 맞서는 강한 면모로 그녀의 작품은 주류의 사조나 원칙에 도전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 동시에 그 작업은 자기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의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 세상에 대한 반항심 그리고 미적 에너지가 어우러져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격정적인 작품들이 탄생한 것이다.

자전적 예술, 트라우마를 치유하다

부르주아는 태피스트리 Tapestry 공방을 가업으로 이어온 프랑스 파리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업 덕분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태피스트리 작업을 접하며 예술적 소양을 쌓았다(훗날 태피스트리는 부르주아의 후기 작품의 근간이 된다). 인내심이 강하고 합리적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감정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아버지와 종종 불화를 겪었다. 아버지는 부르주아의 가정교사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으며 어린 부르주아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랫동안 부르주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예술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에콜 드 보자르에서 회화로 미술계에 입문한 그녀는 페르낭 레제 Fernand Leger의 영향을 받으며 조각가의 길로 전향한다. 돌을 깨고 나무를 깎는 거친 작업과 천을 꿰매고 이어 붙이는 섬세한 작업은 그녀가 성장기에 겪었던 상처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당시 작업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면성을 에로티시즘적으로 표현한 것이 주를 이룬다. 초기 작품 '아버지의 파괴 The Destruction of Father'(1974)는 붉은 조명과 함께 토막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생식기에 둘러싸여 있는 설치 작품으로, 아버지를 죽여 식탁에 올려놓고 식사하는 장면을 재현한 것이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증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초창기의 공격적인 성향의 작품들에서 거침없이 드러난다.

세계적인 조형물 '마망 Maman'(1999) 또한 오랜 세월 그녀를 지배한 트라우마, 자전적 요소들이 근간이 된 작업이다. 단연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9m 이상의 거대한 높이의 거미상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8개의 가느다란 다리가 위태로우면서도 든든하게 몸을 지탱하고 있다. 몸통 중심에 품은 알 주머니의 형태와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욱 가늘게 표현된 다리는 연약하지만 굳은 의지의 모성을 형상화한다. 부르주아는 이 작품을 두고 거미처럼 실로 태피스트리를 짜던 어머니의 은유라고 언급했다. 그녀의 작품에서 에로티시즘은 한때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작업 후기에 이르러 점차 남성과 여성의 이분화를 뛰어넘은 모성의 힘으로 부드럽게 변화되어 간다.



마망, 1999, 스테인리스 스틸·브론즈·화강암, 92.7×89.2×102.3cm



LOUISE BOURGEOIS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프랑스계 미국인 예술가 루이스 부르주아(1911~2010). 자전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는 형식의 '고백 예술',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페미니즘 예술'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으며,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대표 작품으로는 수직적으로 추상화된 인물상 '명사 Personages'(1945~1955), 거미 모양의 대형 조각 작품 '마망 Maman'(1999) 시리즈가 있다.

“
나에게 예술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작업이다.

-루이스 부르주아-

”

세상을 응시하는 눈, '아이 벤치 Eye Benches'

본점 트리니티 가든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이 벤치는 부르주아의 후기 작품으로, 눈을 거대하게 표현한 화강암 조각 작품이다. 작품에서 눈은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투영하고 있으며, 현실을 응시하고 교감하는 매개체이다. 아이 벤치 시리즈와 같이 인체를 분절, 파편화하고 재조합하는 작품 시리즈는 1970~1980년대부터 보여진다. 이 시리즈는 페미니스트 미술평론가들의 관심을 끈 작품들로 의미가 깊다. 1971년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으로 페미니즘 미술이론을 선도한 린다 노클린 Linda Nochlin 등 회화사에서 여성 미술가들의 전문적 지위와 페미니즘 담론이 화두로 떠오르던 70~80년대에 부르주아의 작품은 그 중심으로 주목 받았다. 어떠한 사조로도 얽매이기 싫어했던 루이스 부르주아였으나, 여성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미술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1982년 MOMA에서의 전시, 1992년 카셀 도큐멘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미술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가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미술계에 선보인 선구적인 여성 아티스트로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후기 작업 '망각의 시 Ode a Loubli'(2004) 시리즈를 설명하며 그녀는 “실의 꼬임, 섬유질들은 산의 강물처럼 보인다. 잊기 위해서는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아마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감정도 이해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내면 의식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후기 바느질 작업은 고독한 삶의 표현이자, 훼손된 것을 치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자 용서와 회복의 작업인 셈이다. 그녀에게 미술은 치유이자 구원이었다. 내면세계의 고통을 미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부르주아에게 아이 벤치의 세상을 응시하는 눈은 치유의 가능성이다. 따뜻한 봄날, 트리니티 가든 아이 벤치에 앉아 부르주아의 자전적인 예술 세계와 친밀하게 소통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트라우마를 예술로 치유하고자 한 루이스 부르주아. 그 삶의 고백을 트리니티 가든에서 만나볼 수 있다.